

## 영재아와 일반아의 독서성향과 진로태도성숙 및 자기주도적학습 특성의 관계

박 경 빈

권 혁 민

경원대학교

경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영재아와 일반 초등학교 학생의 독서성향과 진로태도 성숙 및 자기주도적학습 특성을 비교해보고 그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영재아와 일반아의 독서성향을 비교하였을 때, 영재아는 일반아보다 독서흥미, 독서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독서수준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영재아와 일반아의 진로태도성숙을 비교한 결과 진로태도성숙 하위 요인 중에서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은 영재아가 일반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영재아와 일반아의 자기주도적학습 특성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영재아는 일반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독서 성향과 진로태도성숙, 또 독서성향과 자기 주도적 학습 특성 사이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주제어: 독서성향, 진로태도성숙, 자기주도적 학습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로서 국가 간 우열은 두뇌 경쟁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두뇌를 양성하고자 영재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Renzulli(1978)는 영재는 평균이상의 능력, 높은 과제 집착력, 높은 창의성 세 가지가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영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 요소와 후천적 환경의 복합체라고 말하였다.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은 가정이다. 영재아들은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좋아하고 영재아의 부모는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가정의 독서환경도 우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조경옥, 2003). 독서는 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올바른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고 간접적인 생활 경

교신저자: 박경빈(kbpark@kyungwon.ac.kr)

\* 이 논문은 2011년도 경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험의 폭을 넓혀주어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게 한다(정동화, 1984).

현대사회는 지식·정보사회로서 첨단과학 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분화 및 전문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 때문에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및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로인식이 발달하게 되는 초등학교 시기에 아동들이 그들의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진로인식의 발달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개인이 처한 여러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으로 성, 자아, 학업성취도, 지능 등이 진로인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가정의 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교육수준, 학교의 배경 등이 진로인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조미랑, 2005).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로에 대한 방향이 정해진 경우에 진로의식이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고, 진로의식성숙은 진로발달 과업의 수행정도로서 다음 단계의 준비를 위한 예언 자료를 제공해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Herr, Cramer, & Niles, 2004). 아동들은 학교수준에서부터 일의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자기인식을 위한 지도가 필요하며 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태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학습은 인간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적 탐구심이나 학습동기가 자발적으로 발현 되어질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자기주도적학습은 학습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이 뛰어나다. 현대사회는 컴퓨터와 정보 통신의 발달로 세계화와 정보화를 가속시켜 멀티미디어와 초고속 통신을 탄생시켰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달은 엄청난 지식과 정보의 팽창을 가져왔고 인간 생활의 양식과 사고는 물론 교육의 유형까지도 바꾸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고 학습하는 자기주도적학습(Self-directed Learning) 능력을 키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양운택, 1999). 아동 스스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학습과정은 훨씬 효율적이다.

위에 서술한 요인들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영재아 집단과 초등일반아 집단 사이에는 독서성향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초등영재아 집단과 초등일반아 집단 사이에는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초등영재아 집단과 초등일반아 집단 사이에는 자기주도적 학습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독서성향과 진로태도성숙 정도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는가?
- 연구문제 5. 독서성향과 자기주도적 학습 특성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독서성향

독서성향은 독서에 관한 제반 실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독서 계획을 세우거나 독서 생

활에 요인이 되는 아동들의 독서흥미, 독서능력, 독서경향, 독서경험, 독서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성향을 독서흥미, 독서경험, 독서환경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를 알아보는 것으로 한다.

#### 가. 독서흥미

교육에 있어서 흥미는 동기 유발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시 될 것이다. 독서지도에 있어서 흥미는 독서를 하게 하는 동기가 되고, 독서 활동을 지속시키는 원동력도 된다. 그러므로 아동 각자의 흥미에 맞는 독서물을 제공하여 독서흥미를 신장시킴으로써 책을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하는 일은 독서지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전유진, 2006). 독서흥미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지 문항은 책읽기를 좋아하는지, 여가시간에 읽기를 즐겨하는지, 신문을 자주 읽는지, 만화책을 보는 정도, 왜 책을 읽는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나. 독서경험

이요한나(1995)는 사회계층별 독서활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어린이일수록 독서활동이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일간 독서시간이나 독서량이 많을수록 독서를 통한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는 독서 미분화기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오랜 독서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입문기가 되므로 지도에 있어서도 초보적이며 기초적인 것을 중시해야 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짧은 독서경험과 적은 독서량뿐 아니라 의도적인 독서 지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독서에 대한 건전한 흥미를 길러 주어야 함은 물론이며 책을 읽는 방법, 책을 다루는 기술과 태도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독서 지도가 있어야 한다.

3, 4학년에서는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한 1, 2학년 때의 독서와 달리 아동들이 성장함에 따라 자기 생활과 비교할 수 있는 생활동화와 같은 것으로 독서 대상이 옮겨지게 된다. 점차 사회성도 가지게 되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아져서 사전 독서활동으로 자기의 목적에 따라 자유로이 책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 사후 독서활동으로 문학작품에서 얻은 교훈이나 감동을 글로 쓰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시기이다. 글로 쓰는 것과 더불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극화시켜 발표도 하고, 어린이의 사고와 사색을 넓힐 수 있는 각종 독서 기록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5, 6학년의 경우는 자기의 현실적인 생활이 하나의 방향을 형성하고 본인의 인생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소질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을 독서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독서 활동의 과제는 도서 선택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가장 적당한 시기에 좋은 책을 골라 읽는다는 것은 독서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독서 효과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독서환경

어린이들의 독서환경적인 조건은 그들이 독서활동을 하게 하는데 자극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전유진, 2006). 독서환경 요소는 가정적 환경, 학교의 독서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이 있다. 가정 환경은 독서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의 영향이 크고, 부모의 심리적인 관심과 영향이 같이 더해지게 된다. 학교의 독서환경의 요소로는 교사의 인성, 교사와 아동의 인간관계, 학교 행정, 도서관 및 독서자료 등을 들 수가 있다. 지역사회의 독서환경의 요소는 지역 사회의 공립 도서관, 사립 도서관의 유무와 거리가 있다.

독서의 환경적인 조건은 독서 능력이 발달하여 독서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를 깨닫게 되는 초등학교까지의 시기,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독서에 대한 흥미를 깨닫게 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까지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 2. 진로 이론

진로(career)는 직업보다는 넓은 의미로 쓰인다. 진로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면, 김충기(2000)는 진로란 개인이 일상에서 하는 일의 총체라고 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생애 직업 발달과 그 과정 내용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정의하였고, Cochran(1994)은 진로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는 한 사람의 일생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진로의 개념은 행위와 시간적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데, 삶의 생산적인 과정을 강조하는 진로는 표상이나 인지적 도식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결국 진로는 개인의 직업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된 한 개인의 가치, 흥미, 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의 세계에 대한 태도와 지식, 진로계획, 직업탐색, 직업에 대한 만족도, 승진, 직무에 대한 동기, 직업 변경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진로의식은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진가와 진로 선택의 준거를 이해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며 진로를 선택, 결정해 가는 과정이다(허재환, 2002).

진로성숙이란 용어는 1955년 Super가 발표한 ‘직업 성숙의 차원과 측정’(The dimension and measurements of vocational maturity)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당시에는 진로성숙이라는 용어 대신에 직업성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직업 선택의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 직업발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1973년에는 진로발달을 개인의 진로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신체적, 경제적 요인이 모두 관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이후 진로성숙이라는 개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1973년 Crites가 처음으로 진로성숙(career maturity)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보다 포괄적인 상위개념으로 정착되었다.(Walsh & Osipow, 1983).

Crites(1973)는 진로성숙을 과정과 내용으로 나누고 그 두 과정을 통합한 진로성숙측정척도(CMI)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태도란 경향성이며 추상적인 개념이며, 어떤 대상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방향 및 크기를 갖거나, 체계적인 신념이나 의견을 갖는 어느 정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김재호, 2006). 진로태도란 개인이 진로선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진로 방향을 설정·계획하고 스스로 진로를 선택·결정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진로태도성숙이란 진로성숙에서 진로 선택·결정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계획적이고, 확고한 태도의 발달정도를 의미한다(지용근, 2004). 영재아의 진로태도성숙에 관한 연구를 보면 중학교 수학영재아 집단과 일반아 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에 차이가 있으며 영재아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정자영, 2009).

### 3. 자기주도적학습

자기주도적학습의 핵심은 ‘자기주도성(Self-directedness)’과 학습자의 ‘자기관리(Self-manage)’라고 할 수 있으며 학습에 대한 자율성과 주도성을 전제로 하는 학습 형태를 의미하며, 교사, 동료, 교재, 교육기관, 자원매체 등 다양한 형태의 조력자들과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학습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학습욕구 진단, 학습목표 설정, 학습을 위한 인적 물적자원 파악, 적절한 학습전략의 선택 및 실행, 학습결과의 평가 등에 개인이 주도권을 가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인은 학습상황에서 자발성, 다양성, 실제지향성, 자기주도적학습 가능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발성과 자기주도성이 학습의 효율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최운실, 1986). 학업성취도와 수업참여도에 관한 연구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어린이들은 주어진 수업시간의 70% 가량을 자기의 학습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소비하고 있음에 반하여 학업성취도가 낮은 어린이들은 주어진 수업시간의 약 50% 정도만을 소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단순, 2006). 독서교육을 받은 학생은 학습참여도, 봉사활동 참여도 등이 매우 높고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태도가 발달한다(김병환, 2001).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영재아동은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실시한 편별검사를 통해 수학 분야, 과학 분야에서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으로, 설문에 응답한 4~6학년 아동 111명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4명을 제외한 107명이다. 비교 대상인 일반아동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공립 D초등학교의 4~6학년 학생으로 설문에 응한 87명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3명을 제외한 84명이다. 연구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학년	영재여부	영재아(명)		일반아(명)	계(명)
		수학영재(명)	과학영재(명)		
4		19	17	26	62
5		20	18	27	65
6		16	17	31	64
계		55	52	84	191
		107			

## 2. 검사 도구

아동의 독서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는 독서성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설문지(전유진, 2006)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alpha=0.86$ 이다.

진로태도성숙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재호(2006)가 개발한 초등학생 진로태도성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이기학(1997)이 고등학생용 진로태도성숙 척도를 바탕으로 개발한 검사도구로서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5개 하위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하위 영역별로 6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매우 그렇다’(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5점 Likert 방식을 채택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진로태도성숙 척도의 신뢰도

요인	신뢰도
전체	$\alpha=0.90$
결정성	$\alpha=0.84$
목적성	$\alpha=0.85$
확신성	$\alpha=0.85$
준비성	$\alpha=0.78$
독립성	$\alpha=0.71$

자기주도적 학습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Guglielmino (1977)의 SDLRS-E를 이진기(2008)가 재구성한 것이다.

자기주도적학습 특성 검사는 총 48문항으로 Likert 척도로, ‘항상 그렇다.’ (5점)‘부터 ‘거의 그렇지 않다.’ (1점)로 점수화하여 영역별 문항의 총점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의 신뢰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자기주도적 학습 특성 검사의 신뢰도

요인	신뢰도
학습개방성	$\alpha=0.75$
자아개념성	$\alpha=0.63$
술선수범성	$\alpha=0.64$
책임감	$\alpha=0.74$
학습열정도	$\alpha=0.62$
자기이해도	$\alpha=0.64$
창의성	$\alpha=0.64$
자기평가력	$\alpha=0.68$

## IV. 연구 결과

### 1. 초등영재아와 초등일반아의 독서성향 비교

독서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 항목으로 독서흥미, 독서경험, 독서환경을 조사하였고 이에 따른 영재아집단과 일반아집단의 독서성향의 차이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아동집단별 독서흥미, 독서경험, 독서환경 비교

종속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p
독서흥미	영재아	33.85	4.46	107	7.00	0.00***
	일반아	28.51	6.06	84		
독서경험	영재아	45.05	8.36	107	4.79	0.00***
	일반아	39.01	8.97	84		
독서환경	영재아	26.06	5.21	107	1.40	0.16
	일반아	24.98	5.39	84		

\*\*\*  $p < 0.001$

독서흥미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독서성향 설문지 중 책 읽기를 좋아하는지, 책 읽는 것을 즐겁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지, 신문을 자주 읽는지, 책을 읽으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친구가 원하는 책을 읽고 싶어서 읽게 되는지 등이다. 그 결과 영재아 집단의 독서흥미는 일반아집단의 독서흥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독서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독서 계획을 세우고 책을 읽는지, 책 읽는 목적(흥미, 교양, 공부를 잘하려고 등)에 따라 본인 스스로 책을 고를 수 있는지, 책을 읽은 후 독후감이나 독서일기를 쓰는지, 사람에게 책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지, 독서회, 독서토론회(특별활동, 학원 등)에 가입하고 있는지 등이다. 영재아 집단의 독서경험은 일반아 집단의 독서경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독서환경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부모님은 책을 자주 읽으시는지, 책을 읽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지,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은 독서에 관심이 많은지, 집과 학교에 읽을 책이 많이 있는지 등이다. 독서환경에는 영재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 2. 초등영재아와 초등일반아의 진로태도성숙 비교

영재아집단과 일반아집단의 진로태도성숙을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아동집단별 진로태도성숙 비교

종속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p
결정성	영재아	24.73	5.38	107	5.10	0.00***
	일반아	20.45	6.18	84		
목적성	영재아	22.98	5.48	107	2.18	0.03*
	일반아	21.30	5.04	84		
확신성	영재아	22.85	5.32	107	4.21	0.00***
	일반아	19.64	5.10	84		
준비성	영재아	24.21	5.33	107	1.43	0.15
	일반아	23.18	4.46	84		
독립성	영재아	23.82	4.52	107	1.39	0.17
	일반아	22.94	4.14	84		

\* $p < 0.05$ , \*\*\* $p < 0.001$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나타내는 결정성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될 지에 대해 아동이 생각하는 확고한 정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영재아 집단이 일반아 집단의 진로에 비해 진로방향에 대한 결정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신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결정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목적성을 묻는 문항은 직업을 선택할 때 경제적인 면(월급, 연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일하는 시간이 짧고 작업하는 환경도 좋은 직업을 원하는지,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하는 정도,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의 성격, 승진 기회 보다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원하는지 등이다. 결과는 영재아 집단의 진로태도성숙 목적성은 일반아 집단의 진로태도성숙 목적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확신성은 자신이 원하는 꿈의 실현이나 학교, 직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등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영재아집단이 일반아집단에 비해 확신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진로 결정에 필요한 준비,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를 뜻하는 준비성은 자신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잘 알고, 미래의 모습에 대하여 상상을 해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진로태도성숙 준비성은 영재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로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독립성은 자신의 학교나 직업을 선택할 경우 자신이 독립적으로 선택할 것인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거나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그 결과 영재아 집단과 일반아 집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 3. 초등영재아와 초등일반아의 자기주도적학습 특성 비교

영재아집단과 일반아집단의 자기주도적학습 특성은 자기주도적학습 특성 검사지를 사



용하였으며, 항목은 학습의 개방성, 자아개념성, 솔선수범성, 책임감, 학습열정도, 미래지향적 자기이해도, 창의성, 자기평가력 등 모두 8개의 항목이고 각 항목별로 문항은 6개로 되어 있다.

<표 6> 아동집단별 자기주도적학습 특성 비교

종속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p
학습개방성	영재아	26.25	3.51	107	6.23	0.00***
	일반아	22.79	4.17	84		
자아개념성	영재아	26.07	3.61	107	6.41	0.00***
	일반아	22.33	4.45	84		
솔선수범성	영재아	25.37	3.82	107	7.65	0.00***
	일반아	20.68	4.67	84		
책임감	영재아	25.80	3.47	107	5.69	0.00***
	일반아	22.63	4.24	84		
학습열정도	영재아	25.47	4.07	107	2.09*	0.03
	일반아	22.74	12.70	84		
자기이해도	영재아	25.99	4.25	107	3.79	0.00***
	일반아	23.61	4.40	84		
창의성	영재아	26.18	3.79	107	5.96	0.00***
	일반아	22.55	4.63	84		
자기평가력	영재아	26.12	3.46	107	5.60	0.00***
	일반아	22.88	4.54	84		

\* $p < 0.05$ , \*\*\* $p < 0.001$

학습개방성은 새로 배우는 학습에 기대감과 흥미를 갖고 참여하는지, 애매모호한 것도 호기심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즐겁게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물어 보았다. 자아개념성은 꿈을 위하여 자신이 어떤 학습을 해야 하는지, 자기 스스로 필요한 학습을 찾아 하고 있는지, 학습 시간을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자신의 단점을 개선하려고 하는지 등이다.

솔선수범성은 새로운 일을 자발적으로 착수하고 학습경험을 조형하는데 활동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는지, 흥미 있는 문제라면 어려운 문제도 열심히 추구하는지, 자신의 일을 혼자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책임감은 직면한 과제나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는지, 자신의 공부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제나 숙제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반응을 보았다. 학습열정도는 학습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학문을 탐구적인 자세로 임하는지,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갖고 있는지 등을 의미한다.

미래지향적 자기이해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평생 학습자라는

자아개념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도 도전정신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지, 10년 후 또는 2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며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를 얼마나 계획적으로 알차게 보내고 있는지를 보았다.

창의성은 주어진 상황이나 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생각해 내고자 하는 태도나 능력,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 개방된 학습상황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과제에 집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자기평가력은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지, 흥미 있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힘든 과제를 해내는 의지가 있는지, 자신의 학습 방법이 바람직하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국어와 수학의 기초공부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등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하위변인에서 영재아 집단이 일반아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 4. 독서성향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독서성향과 진로태도 성숙 정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서성향의 3개 변인과 진로태도성숙의 5개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내어보았다.

##### 가. 독서흥미와 진로태도성숙 관계

교육에 있어서 흥미는 동기 유발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시 될 것이다. 흥미는 독서를 하게 하는 동기가 되고, 독서 활동을 지속시키는 원동력도 된다. 독서 흥미와 진로태도성숙과의 상관관계는 <표 7>에 나타나 있듯이 독서흥미와 결정성과는 0.24, 목적성과는 0.17, 확신성과는 0.37, 준비성과는 0.27, 독립성과는 0.25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어 독서흥미와 진로태도성숙과는 매우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7> 독서흥미와 진로태도성숙 항목의 상관계수

변수	독서흥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독서흥미	1.00 (***)					
결정성	0.24 (***)	1.00 (***)				
목적성	0.17 (*)	0.44 (***)	1.00 (***)			
확신성	0.37 (***)	0.58 (***)	0.47 (***)	1.00 (***)		
준비성	0.27 (***)	0.12	0.09	0.12	1.00 (***)	
독립성	0.25 (***)	0.21 (**)	0.26 (***)	0.29 (***)	0.23 (***)	1.00 (***)
평균	31.50	22.85	22.24	21.44	23.76	23.44
표준편차	5.85	6.11	5.34	5.45	4.99	4.37

\* $p < 0.05$ , \*\* $p < 0.01$ , \*\*\* $p < 0.001$

나. 독서경험과 진로태도성숙 관계

독서하는 시간, 일주일의 독서량, 책을 읽는 방법이나 자세, 독서토론 경험, 독서록, 독서일기를 쓴 경험 등을 독서경험으로 분류하여 독서경험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표 8> 참조).

<표 8> 독서경험과 진로태도성숙 항목의 상관계수

변수	독서경험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독서경험	1.00 (***)					
결정성	0.27 (***)	1.00 (***)				
목적성	0.19 (**)	0.44 (***)	1.00 (***)			
확신성	0.37 (***)	0.58 (***)	0.47 (***)	1.00 (***)		
준비성	0.43 (***)	0.12	0.09	0.12	1.00 (***)	
독립성	0.23 (**)	0.21 (**)	0.26 (***)	0.29 (***)	0.23 (**)	1.00 (***)
평균	42.39	22.85	22.24	21.44	23.76	23.43
표준편차	9.12	6.11	5.34	5.45	4.99	4.37

\*\* $p < 0.01$ , \*\*\* $p < 0.001$

독서경험과 결정성과는 0.27, 목적성과는 0.19, 확신성과는 0.37, 준비성과는 0.43, 독립성과는 0.23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어 독서경험과 진로태도성숙과는 매우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 독서환경과 진로태도성숙 관계

독서환경은 독서를 하게 하는 요인으로 학교, 담임 교사, 가정의 환경, 친구간의 독서환경 등을 뜻하며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독서환경과 진로태도성숙 항목의 상관계수

변수	독서환경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독서환경	1.00 (***)					
결정성	0.17 (*)	1.00 (***)				
목적성	0.10	0.44 (***)	1.00 (***)			
확신성	0.22 (**)	0.58 (***)	0.47 (***)	1.00 (***)		
준비성	0.46 (***)	0.16	0.09	0.12	1.00 (***)	
독립성	0.16 (*)	0.21 (**)	0.26 (***)	0.29 (***)	0.23 (**)	1.00 (***)
평균	25.58	22.85	22.24	21.44	23.76	23.44
표준편차	5.30	6.11	5.34	5.45	4.99	4.37

\* $p < 0.05$ , \*\* $p < 0.01$ , \*\*\* $p < 0.001$

독서환경과 결정성과는 0.17, 목적성과는 0.10, 확신성과는 0.22, 준비성과는 0.46, 독립성과는 0.16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어 독서환경과 진로태도성숙은 목적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5. 독서성향과 자기주도적학습 특성과의 상관관계**

독서성향과 자기주도적학습 특성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서성향의 3개 변인과 자기주도적학습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내어보았다.

가. 독서흥미와 자기주도적학습 특성과의 관계

독서흥미와 자기 주도적 학습 특성과의 상관계수는 <표 10>에 나타나있다.

<표 10> 독서흥미와 자기주도적학습 특성과의 상관계수

변수	독서 흥미	학습 개방성	자아 개념성	솔선 수범성	책임감	학습 열정도	자기 이해도	창의성	자기 평가력
독서 환경	1.00 (***)								
학습 개방성	0.56 (***)	1.00 (***)							
자아 개념성	0.55 (***)	0.71 (***)	1.00 (***)						
솔선 수범성	0.58 (***)	0.76 (***)	0.82 (***)	1.00 (***)					
책임감	0.49 (***)	0.74 (***)	0.75 (***)	0.75 (***)	1.00 (***)				
학습 열정도	0.36 (***)	0.33 (***)	0.36 (***)	0.32 (***)	0.33 (***)	1.00 (***)			
자기 이해도	0.51 (***)	0.68 (***)	0.74 (***)	0.76 (***)	0.76 (***)	0.34 (***)	1.00 (***)		
창의성	0.51 (***)	0.70 (***)	0.65 (***)	0.71 (***)	0.68 (***)	0.30 (***)	0.70 (***)	1.00 (***)	
자기 평가력	0.49 (***)	0.63 (***)	0.67 (***)	0.71 (***)	0.66 (***)	0.37 (***)	0.71 (***)	0.76 (***)	1.00 (***)
평균	31.50	24.73	24.42	23.31	24.41	24.27	24.94	24.58	24.70
표준편차	5.85	4.18	4.40	4.81	4.13	9.03	4.47	4.55	4.28

\*\*\*  $p < 0.001$

독서흥미와 학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갖고 받아들이는 학습개방성과는 0.56,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 내용과 자율적인 시간 관리, 자신을 긍정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인 자아개념성과는 0.55, 새로운 일을 자발적으로 착수하고 자신의 일을 혼자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어려운 문제를 추구하는 태도, 할 일을 활동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을 나타내는 술선수범성과는 0.58, 맡은 일이나 과제가 있으면 꼭 해결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나타내는 책임감과는 0.49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학습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고 새로 배우는 것에 대해 즐겁게 생각하며 탐구정신을 갖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학습열정도와는 0.36,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며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해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미래 지향적 자기이해도와는 0.51, 개방된 학습 상황과 호기심을 선호하며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생각해 내는 능력, 독특한 답을 생각해 내는 것으로 표현되는 창의성과는 0.51,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탐구적 태도, 자신의 학습 방법에 대한 믿음 등을 나타내는 자기평가력과는 0.49로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독서흥미와 자기주도적학습 특성 항목은 모두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독서경험과 자기주도적학습 특성의 관계

독서경험과 자기주도적학습 특성과의 상관관계는 <표 11>과 같다. 독서경험과 학습개방성은 0.63, 독서경험과 자아개념성은 0.56, 독서경험과 술선수범성은 0.60, 독서경험과 책임감은 0.51, 독서경험과 학습열정도는 0.29, 독서경험과 자기이해도는 0.54, 독서경험과 창의성은 0.54, 독서경험과 자기평가력은 0.48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즉, 독서경험과 자기주도적학습 특성 항목은 매우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독서경험과 자기주도적학습 특성 항목의 상관계수

변수	독서 경험	학습 개방성	자아 개념성	술선 수범성	책임감	학습열 정도	자기 이해도	창의성	자기 평가력
독서 환경	1.00 (***)								
학습 개방성	0.63 (***)	1.00 (***)							
자아 개념성	0.56 (***)	0.71 (***)	1.00 (***)						
술선 수범성	0.60 (***)	0.76 (***)	0.82 (***)	1.00 (***)					
책임감	0.51 (***)	0.74 (***)	0.75 (***)	0.75 (***)	1.00 (***)				
학습열 정도	0.29 (***)	0.33 (***)	0.36 (***)	0.32 (***)	0.33 (***)	1.00 (***)			
자기 이해도	0.54 (***)	0.68 (***)	0.74 (***)	0.76 (***)	0.76 (***)	0.34 (***)	1.00 (***)		
창의성	0.54 (***)	0.70 (***)	0.65 (***)	0.71 (***)	0.68 (***)	0.30 (***)	0.70 (***)	1.00 (***)	
자기 평가력	0.48 (***)	0.63 (***)	0.67 (***)	0.71 (***)	0.66 (***)	0.37 (***)	0.71 (***)	0.76 (***)	1.00 (***)
평균	42.39	24.73	24.42	23.31	24.41	24.27	24.94	24.58	24.70
표준편차	9.12	4.18	4.40	4.81	4.13	9.03	4.47	4.55	4.28

\*\*\* p<0.001

다. 독서환경과 자기주도적학습 특성의 관계

독서환경과 자기주도적 학습 특성의 상관계수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독서환경과 자기주도적학습 특성 항목의 상관계수

변수	독서 환경	학습 개방성	자아 개념성	술선 수범성	책임감	학습열 정도	자기 이해도	창의성	자기 평가력
독서 환경	1.00 (***)								
학습 개방성	0.47 (***)	1.00 (***)							
자아 개념성	0.40 (***)	0.71 (***)	1.00 (***)						
술선 수범성	0.41 (***)	0.76 (***)	0.82 (***)	1.00 (***)					
책임감	0.43 (***)	0.74 (***)	0.75 (***)	0.75 (***)	1.00 (***)				
학습열 정도	0.19 (**)	0.33 (***)	0.36 (***)	0.32 (***)	0.33 (***)	1.00 (***)			
자기 이해도	0.45 (***)	0.68 (***)	0.74 (***)	0.76 (***)	0.76 (***)	0.34 (***)	1.00 (***)		
창의성	0.36 (***)	0.70 (***)	0.65 (***)	0.71 (***)	0.68 (***)	0.30 (***)	0.70 (***)	1.00 (***)	
자기 평가력	0.44 (***)	0.63 (***)	0.67 (***)	0.71 (***)	0.66 (***)	0.37 (***)	0.71 (***)	0.76 (***)	1.00 (***)
평균	25.58	24.73	24.42	23.31	24.41	24.27	24.94	24.58	24.70
표준편차	5.30	4.18	4.40	4.81	4.13	9.03	4.47	4.55	4.28

\*\* $p < 0.01$ , \*\*\* $p < 0.001$

독서환경과 학습개방성은 0.47, 자아개념성은 0.40, 술선수범성은 0.41, 책임감은 0.43, 학습열정도는 0.19, 자기이해도는 0.45, 창의성은 0.36, 자기평가력은 0.44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독서환경과 자기주도적학습 특성 항목은 모두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아와 일반아의 독서성향을 비교한 결과 영재아는 일반아보다 독서흥미, 독서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는 조정옥(2003)의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독서흥미도가 높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왔으며 독서수준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영재아와 일반아의 진로태도성숙을 비교한 결과 진로태도성숙 하위 요인 중에서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은 일반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준비성, 독립성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태도 성숙 하위 요인 모두 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높게 나온 결과와 비교된다(정자영2009).

셋째, 영재아와 일반아의 자기주도적학습 특성을 비교한 결과 자기주도적학습 특성 하위 8항목 즉, 학습개방성, 자아개념성, 술선수범성, 책임감, 학습열정도, 미래지향적 자기이해도, 창의성, 자기평가력의 모든 항목에서 영재아는 일반아보다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뚜렷하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넷째, 독서흥미, 독서경험, 독서환경과 진로태도성숙의 하위 요인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은 영재여부에 상관없이 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섯째, 독서흥미와 자기주도적학습 특성, 독서경험과 자기주도적학습 특성, 독서환경과 자기주도적학습 특성 사이에는 영재여부에 상관없이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의 영재아와 일반아를 비교 연구한 결과로 영재아는 독서흥미, 독서경험이 일반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독서흥미, 독서경험, 독서환경이 진로성숙태도와 자기주도적학습 특성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진로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효율적으로 활동해야 할 학생 시절에 꾸준한 독서활동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독서활동과 진로태도성숙, 자기주도적학습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 나타났으므로 더 자세하게 조사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효율적인 학생진로지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본격적으로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조사해 보고 어떤 종류의 도서가 진로성숙태도나 자기주도적학습 특성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병환 (2001). **초등학교 독서 교육과 자기주도적학습의 연계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재호 (2006). **초등학생의 가족체계화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충기 (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양운택 (1999). **평생학습사회와 자기주도적학습**. 교단 가꾸기, 96.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연세

대학교.

- 이단순 (2006). **초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 이진기 (2008). **글쓰기 활동이 초등학생의 자기주도적학습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전유진 (2006). **아동의 독서성향과 진로인식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 정동화 (1991). **국어과 교육론**. 서울: 조일문화사.
- 정자영 (2009).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조경옥 (2003). **영재아와 일반아의 독서성향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조미랑 (2005).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지용근 (2004). **성역할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허재환 (2002).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관과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Cochran, L. (1994). What is a career problem?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 204-205.
- Guglielmino (1977). *Development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Herr, E. L., Cramer, S. H., & Niles, S. G. (2004). *Career guidance and counsel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es* (6th ed.), Voston, MA: Allyn & Bacon.
- Renzulli, J. S. (1978). What makes giftedness? Reexamining a definition. *Phi Delta Kappan*, 60(3), 180-184, 261.



= Abstract =

## The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Dispositi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leading Learning Trait of Gifted and General Students

Kyungbin Park

*Kyungwon University*

Hyukmin Kweon

*Kyungwon University*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ee if there are any relationships between reading dispositi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leading learning trait among gifted and gener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in reading disposition, gifted students showed higher result compared to the general students at reading interest and reading experience, but were not different in reading environment. Also, gifted students showed higher results i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determination, purposes, assurance, but were not different in readiness and independence. Additionally, gifted students showed higher results at self-directed learning in 8 sub-categories, which are openness to learning, self notion, taking-initiative ability, responsibility, learning zeal, future-oriented self-knowledge, creativity, and self assessment. In addition, the research indicates that career attitude maturity is correlated with reading interest, reading experience and reading environment. Also, self-leading learning is correlated with reading interest, reading experience and reading environment.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the following are suggested.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4th~6th grades. Hence, the research needs to be extended to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in order to guide students' careers and improve students' self-leading learning ability, those results need to be applied to real educational situations. In addition, research need to be done to find out what kind of books have more effect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trait.

**Key Words:** Reading Disposition, Career Attitude Maturity, Self-leading Learning Trait

1차 원고접수: 2011년 2월 8일

수정원고접수: 2011년 3월 16일

최종게재결정: 2011년 3월 25일